

## 02

# 고양화훼특구, 규제 개선으로 활로 찾아

GB내 공판장 설치주체 완화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의 길이 열린다

 추진부서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032-8075-4251

### 개선배경



- 고양시(시행자 : 한국화훼농협)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공모에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함
- 한편,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해 있어 관련법상 공판장 설립 주체가 지역조합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품목조합인 화훼농협의 사업 추진이 불가, 사업 백지화 및 국비 반납 등의 위기에 봉착함
- 화훼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농협이 화훼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주체 자격 완화가 필요

### 〈 고양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 〉

- 사업부지 :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1-11외 4필지
- 사업비 : 195억원(국비 40억, 지방비 40억, 자부담 115억)
- 사업규모 : 41,779㎡(공판장, 집하장, 구판장 등 건축면적 22,485㎡)

### 개선내용



#### 개선전

-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 주체가 “지역조합”에 한정



#### 개선후

-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 주체를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로 확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요청
  - 2019. 2. 경기도청 규제개혁 담당관실에 개정 건의 요청
  - 2019. 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과에 개정 건의 요청

- '19. 12월 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예정
  - － 국무조정실, 경기도, 고양시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합의
  - －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공판장에 대하여 지역조합뿐만 아니라 품목조합도 설치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5. 마. 4)항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5. 마. 4)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마. 4)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선효과



- 화훼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유통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생산·경영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
- 유통구조 개선→ 화훼소비 촉진→ 화훼산업 재도약→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효과 기대
  - － 수도권 공영도매시장 기능의 강화로 농가에 불리한 민간 시장 주도의 화훼유통을 개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농가 소득 증대
  - － 판매가격 인하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로 현재 국민 1인당 1만 2천원의 화훼소비 금액이 2만원 이상으로 증가 예상
  - － 현재 6천억원 규모의 화훼시장이 향후 1조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 중도매인 매장 입점(70여 개, 약 140명), 경매장 운용인력(약 200명) 등 일자리 창출 효과



화훼유통센터 대상지



화훼유통센터 조감도